

# 정읍 농업 신기술 보급에 75억 투입

### 시, 93개소 57개 사업 확정 병해충 관리·온실가스 감축 등 사업대상자 교육·우수사례 발굴

정읍시가 올해 농업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57개 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한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열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2023년 추진할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는 관내 농업 관련 기관과 농업인단체 등 산학관 협동체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심의회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부자 농촌, 부자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57개 사업(사업비 75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자 93개소를 확정했다.

심의 결과, 식량작물 분야에 발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등 14개 사업에 45억8400만원, 소득작목에는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시설제재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등 12개 사업에 7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정읍시는 최근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열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2023년 추진할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정읍시 제공>

또 농촌사회분과는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 화사업 등 31개 사업에 22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후에는 평가회도 열어 우수사례 발굴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소득향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첨단농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모든 세대에 난방비 20만원 지원

### 2만8657세대 57억원 투입

고창군이 군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세대에 20만원씩 지원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파 속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지원을 위해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도비와 군비 등 총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1월31일 기준 총 2만8657세대에 각 20만원씩을 지원한다. 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3월중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휴업소를 제외한 고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도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군은 지역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비를 대폭 추가하며 전 세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직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1호 결재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왔다.

이번 '4차 재난기본소득' 역시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전세대 20만원씩 난방비 특별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와 공공요금 폭등까지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 남원시 '찾아가는 공동체학교' 실시

남원시가 2023년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를 실시한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는 지난 2020년에 시작해 매년 현장 방문형 운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단체는 총 31개 단체, 275명으로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왔다.

'찾아가는 공동체학교'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이후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연계됐다.

올해 진행되는 '2023년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이동식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공동체 구성원의 수요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이해, 공동체 활동 체험,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신규공동체나 제도약 공동체에게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공동체 활동을 위해 구성된 모임이나 3~5인 이상의 공동체라면 누구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남원시-LX공사 '지적재조사측량 위탁 협약'



최경식(오른쪽) 남원시장과 LX공사 전북지역본부 박종화 본부장이 13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와의 2023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위수탁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탁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현황조사, 경계점 측량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측량성공물 작성을 비롯해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력배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국비 9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업량 대비 3.4배이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관내 매오신기, 송동1, 사울고정, 이백2, 아영1 등 5개 지구 483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공정별 업무 분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겠다"면서 "다무리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윤준병 의원, 지역 주민과 소통 강화

### 읍면동 방문 '토방청담' 재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의원이 지난 11일 정읍 소성면과 입암면에서 '토방청담(土訪廳談)'을 재개하며 지역주민과 소통강화에 나섰다.

토방청담은 읍·면·동 지역을 방문해 토방청담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취지의 지역주민과의 소통방법으로, 윤 의원의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의정활동 브랜드의 하나다.

이날 소성, 입암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토방청담'에는 지역 주민들이 각각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방청담에서 지역주민들은 소성천 상류 치수 가능 보강, 파크골프장 건설, 다원시스의 일자리

관련 이행, 농업용수의 공급 능력보강 등의 지역현안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 진행 문제, 농업재해보험의 개선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의원의 답변을 들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읍의 해결사,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의 슬로건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당선 이후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 정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해 의정 방향을 보고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토방청담을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정읍의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싹틔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지황 생산·가공·체험 인프라 구축

### 4년간 30억원 투입

정읍시가 정읍지역 특화작목인 지황을 활용, 융복합 산업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황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김형우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지황 융복합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사업추진 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단 정관과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또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심도

있게 토론이 진행됐다.

'지황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된 곳을 지구로 지정해 생산·가공·유통·체험 등이 융복합된 산업화 촉진과 지역경제의 다각화, 고도화를 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황 영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마케팅,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